

# 민주 선거인단 모집…막 오르는 대선 경선

15일부터 신청하면 누구나 1인1표…각 진영 확보 총력

호남경선 6만~7만 얻어야 승리…4월초 후보 결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부터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한다.

특히, 권역별 경선의 첫 관문인 호남에서의 선거인단 확보를 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의결할 것”이라며 “모집 기간은 13일 당 선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과 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경선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캠프 발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며,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선거인단으로 신청해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는 직접 현장에서 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은 100만명의 일반인이 선거인단으로 모집돼 58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인단 규모는 150~16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표 참여 선거인단은 10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만명 정도의 지지자를 선거인단으로 참여시킨다면 경선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호남의 선거인단 규모는 15만명 내외로 전망된다. 최소 6~7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호남경선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인단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호남경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조직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지지를 천명할 광주·전남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인단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조직보다는 민주당 경선 참여를 촉구하는 등 ‘바람’으로 승부를 겨룬다는 전략이다. 호남 민심의 정치적 감각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선거인단 규모보다는 민심 흐름에 따라 경선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소셜네트워クス서비스(SNS)를 홍보에 적극 이용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서는

“호남의 개혁 민심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손가락 혁명 동지 등이 주축이 되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말 현재의 탄핵심판이 결정될 것을 고려, 3월1일 첫 투표에 들어가 빠르면 13일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일정을 확정해 지난날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신청했으나 현재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4월초까지 당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호남권(광주)을 시작으로 충청권(대전)→ 영남권(부산)→ 수도권·강원·제주(서울) 순으로 4차례 순회경선 투표를 할 방침은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경선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최고위 전국 순회

대선주자 참여…20일 광주

국민의당은 이번 주부터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국 순회 최고위에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은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도 참여한다.

첫 일정으로 12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큰 피해를 본 전북지역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 현황 점검, 축산농가와의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

또 오는 15일에는 지진과 원전 문제로 안전 우려가 끊이지 않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방문한다. 20일에는 광주, 24일에는 대구·경북, 27일은 대전·충청, 6일에는 강원지역을 각각 찾아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2일 “민생정치의 담은 현장에 있다”며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 개최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 최우선 정당’으로 국민 마음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수석부대변인에 양승필 부대변인을, 상근 부대변인에 김경화 국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이덕욱 부산진구를 지역위원장·김경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한기은 화성시병 지역위원장·박운희 전라위원회 부위원장·김형남 화성시를 지역위원장·김영구 서울시장 수석부대변인·김기욱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을 부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낮은 지지율에…범여권 경선체제 힘 빠져

선거인단 구성 난항 우려…새누리 전대·바른정당 안심번호 유력

범여권이 대선후보 경선 준비기구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조기대선을 대비한 경선체제로의 전환에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당과 후보의 낮은 지지율, 신생정당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선거인단 구성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경선체제 전환에 분주한 바른정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1명의 경선관리위원회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경선관리와 정책검증 2개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각각 김재경 의원 등 중립적인 3~4인의 원이 소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인 김재경 의원은 경선관리위 부위

원장이다. 위원장은 이종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다. 나머지 위원은 원내·외 인사가 균형 있게 배치된다.

바른정당은 일단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다는 대원칙에는 합의의를 이뤄냈지만, 선거인단 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생정당으로 전국 조직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선거인단 구성으로 경선 흥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선관리위는 경선률의 운곽을 잡는 대로 오는 18~19일께 유 의원, 남 지사와 ‘룰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조심스럽게 경선체제 전환을 위한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는 대선체제를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예비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내·외 인사들로 선거관리위를 구성하겠다”며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새 당헌·당규가 추진받는 대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 당헌·당규는 대통령 권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선거관리위가 경선을 등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범여권이 선거인단 구성을 주저하는 배경은 당과 후보 지지율이 낮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 자칫 선거인단 구성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의당-손학규, 통합작업 속도

국민의당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의장 측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에 올랐다.

손 의장은 지난 10일 최근 통합 선언 후 처음으로 국민의당을 공식 방문하며 상견례를 했다.

당 지도부의 환대 속에 첫 만남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양측은 또 곧 실무자 단계의 통합 협의에 나선다. 통합의 쟁점으로 지목됐던 통합 후 당명 개정 문제와 대선후보 경선에 등에 대해 손 의장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론 등에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명 개정에 대해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 것”이라며 사실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손 의장은 대선후보 경선을 협상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니다. 다 공정한 경선률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의당과 박 대표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실무적인 것은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 예상치 못한 암초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손 의장 측의 인사 배려 문제가 거론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2일 “손 의장 측 인사에 당 대변인 등 자리를 내줄 수 있지만, 이미 구성이 완료된 최고위원 등 더 높은 당직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을 협상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큰 틀에서 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을 치르는 것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세부 경선룰 협상 전망은 미지수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 1. 공매물건

### 물건번호

### 소재지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4-5 토지  
 [건물]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4-5 건물  
 [신탁자산]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4-5 건물 대 개폐기구  
 ※ 기계기구 세부 내역

1. 감정평가기관: (주)세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2. 개찰시점 / 작성일: 2017. 01. 19 / 2017. 01. 19.
3. 감정평가사 번호: 제2017-01-0133
4. 공매 요청 신탁자산은 상기 및 감정평가기관에서 2017.01.19에 작성한 감정평가서 상에 기재된 기구목 목록 일체.

주1: 공매물건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동기부동산(신탁원)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공매물건 중 신탁자산과 관련된 매매계약은 신탁계약상선 우선순위자인 주신청자 광주은행과 체결.  
 주3: 상기 공매물건 중 상기 신탁자산은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참조.

## 2.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 입찰가격

(단위: 원)

| 회차 | 공매일시 (윤달기능일시)               | 온비드 개찰일시            | 최저 입찰가격       |
|----|-----------------------------|---------------------|---------------|
| 1차 | 2017. 02. 23, 10:00 ~ 16:00 | 2017. 02. 24, 10:00 | 3,700,000,000 |
| 2차 | 2017. 02. 24, 10:00 ~ 16:00 | 2017. 02. 27, 10:00 | 3,330,000,000 |
| 3차 | 2017. 02. 27, 10:00 ~ 16:00 | 2017. 02. 28, 10:00 | 2,997,000,000 |
| 4차 | 2017. 02. 28, 10:00 ~ 16:00 | 2018. 03. 02, 10:00 | 2,700,000,000 |

주1: 본 공매공고는 신탁개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2: Onbid 공매의 특성에 의거, 각 입찰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공매일시 전 영업일 18시까지 전 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주3: 공매물건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경우, 최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각 차수별 유찰에 따른 차수 공매예정가격은 이전 차수 공매예정가격의 10%증가를 차감한 금액.

## 3. 입찰에 관한 사항

### 가. 공매장소

- 가. 공매장소: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 가. 공매장소: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광주일보사, 당사 홈페이지(www.kukjetrust.com)
- 가. 문의처: 국제자산신탁(주) 호남지역본부 ☎ 0620 470-3000

### 가. 공매방법

- 가. 공매방법: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신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Onbid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합니다.
- 가. 개찰: 상기 일정에 따라, 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합니다.
- 가.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등입찰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투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의 계약: 공매가 유찰된 경우 전 차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유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 유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 취소등 확인: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제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① 및 ②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가. 부가가치세: 공매물건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낙찰가에서 감평가의 비율로 토지, 건물, 신탁자산 비용을 계산한

후 건물, 신탁자산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당사는 발급주체가 아니며 수의자 또는 우선순위자가 발급주체임)로부터 구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자산

가. 본 공매 물건 중 신탁자산 등의 경우 우선순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해)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자를 결정하였더라도 낙찰자의 지위를 취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또는 매매계약의 해지(해)할 수 있음)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당사는 개별 낙찰자가 신탁부동산 및 신탁자산 등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 한정하지 않고 등의 조건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매물건 중 신탁자산의 유지관리 책임, 매수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제세공과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의무 및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어 유찰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당사에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면책되는 조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신한은행(신한위탁), 하나은행(하나위탁) 및 우리은행(우리위탁) 중 하나의 은행에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에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입찰서 제출시 납부할 발급은행의 은행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 받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사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최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당사는 발급주체가 아니며 수의자 또는 우선순위자가 발급주체임)로부터 구부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서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장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낙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금에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제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변협의 재청·개정 및 전처분 등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체결을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당사는 발급주체가 아니며 수의자 또는 우선순위자가 발급주체임)로부터 구부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금 액       | 납 부 일                      |
|-----|-----------|----------------------------|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 잔 금 | 매매대금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6. 공매해지조건

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금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매수자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공매물건에 존제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유권부실행(소유권부행 포함), 입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인됩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입차권이 있을 시 낙찰자는 매각 대금 외에 입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을 찾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쓴 것으로 추정된 탄환 흔적을 살펴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일빌딩 탄흔 현장 찾은 박지원

“5·18 진상규명의 길은 정권교체…국민의당이 앞장”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을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 헬기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발

견된 것과 관련, “전인법(전 특전사령관) 장군의 현장 방문을 촉구한다. 뭐라

고 께변을 할까”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의 진실은 누구도 속일 수도

없앨 수도 없다”며 이같이 썼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영입한 전진법 전 특전사령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5·18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불거

지자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전

일빌딩 10층을 찾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쓴 것으로 추

정된 탄환 흔적을 둘러보면서 “아직도

전인법 장군 같은 분은 사실을 부인하고

전두환의 발포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분

노케 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헬기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

을 보존시킨 광주시민의 위대한 정신을

위해서도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진상규

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5·18 광주민주

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최대의 길은

정권 교체에 있다. 정권 교체의 주역으

로 국민의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5·18 특별법 개정안

을 제1호 법안으로 당론으로 국회에 제

출했듯이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진상

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

성했다”며 “(총탄 흔적) 보존과 원인,

발포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규명해서

5·18 영령들과 위대한 광주시민에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1969년 지어진 전일빌딩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헬기 난사로 추정되는 탄흔이

건물 내부에서 쏟아져 나와 주목을 받

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연합뉴스